

세계적 양산의 **환상적인 골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6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광주 상무와 FC 서울의 K-리그 4라운드 전반 8분 박주영(23·서울·맨 왼쪽)이 프리킥을 골로 연결시키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일 4안타 '빈공'...5일 장단 18안타 '폭발' 호랑이 방망이 '들쭉날쭉'

KIA타이거즈의 타선이 널뛰기를 하면서 초반 상위권 진입에 빨간불이 켜졌다.



KIA, 한화와 주말 2연전 '장군명군'

KIA는 6일 대전구장에서 벌어진 한화와의 경기에서 0-4로 완봉패를 당하며 원정 3연전에서 1승 2패를 안고 광주로 돌아왔다. 이날 7개의 사사구를 얻은 KIA는 적시타 불발과 도루실패와 견제 등 3명의 주자가 횡사를 당하면서 시즌 3번째 완봉패를 당했다.

5번 타자 최희섭이 4회와 9회 2개의 안타를 뽑아냈지만 KIA 타선이 뽑아낸 전체 안타 수는 4개에 불과했다. 선발 전원이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올 시즌 최대 안타를 기록했던 지난 5일과의 모습과는 전혀 판판이었다. KIA는 5일 타선의 폭발로 9-4로 이겨 선발 윤석민은 원정 8연패만에 승을 챙겼었다.

폭발과 침묵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 타선에 번번히 공격 흐름이 끊기면서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KIA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다.

마운드와의 격차로 투수들의 어깨도 무겁다. 리마는 2경기에서 13이닝을 던지며

2.77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팀은 2패를 기록하며 1승도 챙기지 못했다. 선발 윤석민, 서재용, 이대진은 1실점만 하는 호투 속에 패전 투수가 되는 불운도 겪었다. 박자가 안 맞는 타선에 KIA의 라인업도 이현근-장성호-최희섭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제외하곤 아직 안정된 틀을 갖추지 못했다. KIA는 '천작' 전병호(삼성)와 류현진(한화)이 마운드에 올랐던 2경기에서 5개의 안타를 뽑으며 1점을 얻는데 그쳤다. 그나마의 1점도 장성호의 홈런에 의한 점수였다.

지난해 꼴찌의 여파가 여전히 타선에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KIA의 완봉패를 이끈 전병호와 안투승을 거뒀던 류현진은 경기 초반 구위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약점을 보여왔던 KIA 타선은 주눅이 들어 제대로 된 스윙을 하지 못했다. 지난 4일 경기에서는 류현진이 제구가 잡히지 않아 고전하고 있는 동안 KIA 타선은 삼중타 공격으로 몰려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LG 트윈스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는 12개의 탈삼진을 뽑은 송승준의 활약으로 롯데가 7-0으로 완봉승을 거두었다. 대구구장에서는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운 삼성 라이온즈가 7-2로 이기며 우리 히어로즈의 연승행진을 잠재웠다. 문학구장에서는 SK 와이번스의 용병 쿠비안이 4-1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홍성흔을 처음으로 선발로 낸 두산 베어스를 제압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6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6	2	0	0.750	0.0	1승
2	롯데	6	2	0	0.750	0.0	1승
3	우리	5	2	0	0.714	0.5	1패
4	SK	5	3	0	0.625	1.0	4승
5	KIA	3	5	0	0.375	3.0	1패
6	두산	2	5	0	0.286	3.5	5패
7	한화	2	6	0	0.250	4.0	1승
8	LG	2	6	0	0.250	4.0	1패



'빅쇼이' 도루는 무리?

6일 대전 한밭야구장에서 열린 2008 프로야구 한화이글스-KIA 타이거즈 경기 4회초 1사 1루 KIA 김원섭 타석 때 1루주자 최희섭이 2루 도루에 실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리나 윌리엄스가 6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테니스 마스터스시리즈 소니 에릭슨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엘레나 안코비치를 2-1로 꺾고 우승을 확정지은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리나 통산 30승 소니오픈 테니스 2연패

'흑진주' 서리나 윌리엄스(27·미국)가 테니스 마스터스시리즈 소니 에릭슨오픈(총상금 754만달러) 여자단식에서 우승했다.

세계 랭킹 8위 윌리엄스는 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크랜든파크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엘레나 안코비치(3위,세르비아)를 2-1(6-1 5-7 6-3)로 꺾고 이 대회에서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개인 통산 30승째를 거둔 윌리엄스는 1세트는 28분 만에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고 2세트에서도 5-4로 앞선 가운데 서브 게임에 들어가 승부를 끝내는 듯 했지만 내리 3게임을 내주며 마무리할 기회를 놓쳤다.

2세트를 뺀 아쉬움을 만회하기라도 하듯 윌리엄스는 3세트에서 5-0까지 앞시간 끝에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됐다.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저렴·확실히 회원권, 비·상공회비에서 탈락할 필요가 없어 오아레트르투로 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상담전화 (062)351-0095

전남 최하위 '추락' 광주 무패행진 '멈춤'

광주, 서울에 0-1 분패
전남, 성남에 0-4 대패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스타군단' FC 서울의 벽에 막혀 무패 행진을 마감했다. 상무는 6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서울과의 K-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8분 '축구 천재' 박주영의 프리킥이 상무 골문을 가르며 0-1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K-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 1승 3무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쳤던 상무는 박주영, 김은중, 김진규, 김치곤 등의 스타급 선수를 내세운 서울의 공세에 밀려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지난달 31일 집단 식중독으로 2일 예정된 2008 삼성 하우젠컵 대구FC와의 홈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상무 선수단은 경기 초반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며 고전했다. 전반 8분 상무의 수비수 최재수는 골 에리어 바깥쪽에서 반칙을 하면서 프리킥

을 내주었고, 서울의 간판 박주영은 이를 놓치지 않고 골대 우측 상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멋진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다.

상무는 경기 중반부터 선수들의 움직임이 살아나면서 전반 41분 김병중이 박규선의 패스를 받아 단독 돌파에 이어 슈팅까지 날렸으나 골문을 비껴났다.

44분과 추가 시간에도 이현민의 헤딩슛과 고창현의 슈팅이 터졌으나 골키퍼 김호준 손에 걸리며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무리했다.

골키퍼 김용대의 선방을 발판으로 삼은 상무는 후반 29분 김병중 대신 공격수 남익경을 투입하며 전세 뒤집기에 나섰다. 36분 박종진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 우측 상단을 맞고 나오는 등 골문이 따르지 않아 득점에 실패했다.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으로 원정 경기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는 성남 일화와의 경기에서 0-4로 대패하며 최하위로 떨어졌다.

전남은 전반에만 김정우, 두두, 조동건에게 내리 세 골을 내준 뒤, 후반전에서 조동건에게 추가골을 허용하며 1무3패로 K-리그 14위로 추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현대캐피탈 챔피언전 진출

대한항공에 2승1패



기흥 수송을 받은 '윈슨 거포' 박철우(23)가 알토란 같은 12득점 활약으로 현대캐피탈의 남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앞장섰다.

현대캐피탈은 6일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07-2008 V-리그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 3차전에서 나란히 12점을 사냥한 박철우와 송인석의 활약에 힘입어 대한항공을 3-1(25-17 19-25 25-23 25-19)로 물리쳤다.

1차전(3일)을 먼저 내준 현대캐피탈은 2차전(5일)과 3차전(6일)을 연속으로 따내며 2005년 프로 출범 이후 매년 챔피언전에 진출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현대캐피탈은 4세트 박철우, 송인석의 좌우 강타와 하경민의 블로킹을 보태 4세트를 따내며 프로배구 출범 이후 4년 연속 챔피언전에 진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의 파괴력이 빛을 발했다.

1세트는 리베로 최부식의 '발 배구'에 힘입어 대한항공에 돌아갔다. 2세트는 후인정과 로드리고가 11점을 합작하며 현대캐피탈이 가져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3세트에는 보고도 믿기 힘든 역전극이 펼쳐졌다.

로드리고 대신 3세트부터 공격에 나선 박철우는 송곳 같은 스파이크로 5득점을 올리며 12-15까지 따라붙었다.

대한항공은 보비와 장광근의 좌우 공격으로 맞섰지만 박철우, 송인석의 쌍포에 밀리며 22-22 동점을 허용했다.

현대캐피탈은 박철우의 8점째 스파이크로 앞선 뒤 송인석의 연속 득점으로 3세트를 따냈다.